

# 미국의 청소년, 우리의 청소년

이동식/KBS보도국 국제부장

**미**국의 경제는 지난해부터 멈출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경제 호황속에서 이제 미국인들의 관심은 서서히 자라나는 2세들로 모아지고 있다.

과연 미국의 청소년들은 어떤 상황일까? 조사결과 “미국의 십대나 어린이들은 전보다 덜 굶주리고 덜 죽으며 덜 태어나고 덜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정부의 연례조사는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어린이들은 제대로 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2차대전이후의 베이비붐이 한창이던 1964년 총인구에서 18세 이하 어린이들의 비율은 36%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6%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는 24%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정의 해체가 여전히 빠르게 진행 중이다. 부모 중 한 명만 같이 사는 어린이가 1980년 20%에서 이번에는 27%로 7%나 늘었다. 특이한 것은 아빠와 같이 사는 경우가 2%에서 4%로 두배나 늘었다는 점이다. 백인보다는 흑인이나 스페인계 어린이들의 출생률이 거의 세배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높다. 당연히 미국의 주류라고 자부하는 백인들은 불안을 느낀다.

미국 어린이들의 흡연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매일 핀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 8%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16%로, 고등학교 3학년은 23%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즉 고3의 4명중 1명은 담배를 핀다는 것이어서 우리보다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술집에 자주간다는 응답도 중2학년은 15%, 고1은 26%, 고3은 31%였다. 특히 고1의 경우 술집에

가는 비율이 한 해만에 2%가 늘어나므로 국내에서처럼 술을 마시는 연령이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고1 때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3의 경우 3명 중 한 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

또한 잘못된 고민으로는 고3학생의 27%가 마약을 복용한다는 것이다. 주의깊이 볼 것은 한 살 이하의 영아돌연사망률이 절반가량이나 줄어든 점이다. 국립어린이 건강인간개발연구소의 듀안 알렉산더 박사는 갓난 아기를 뒤집어 놓지 말고 눕혀 놓도록 부모나 간호사들을 교육시킨 결과 영아의 돌연사망이 크게 줄어 들었다며, 이 분야는 앞으로 더욱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분야에서 미국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는 증진됐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 종합평가다. 전반적인 상황은 개선됐으나, 알코올이나 마약 등에서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고3학생의 경우 마약과 음주가 것처럼 빈번하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청소년, 학생들은 과중한 입시부담으로 이들 학생들보다 너무나 힘든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그 부담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참아가고 있다는 점은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교육개혁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다.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의 하나로서 정말 우리의 교육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이 높을 정도로 아이들을 잡아놓고 있음을 실감한다.

미국의 어린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교육문제를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